갸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엉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펑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반짝반짝 성탄별은 기쁨의 소식을 전했고, 유치촌 아이들 눈 속에 기쁨의 별이 세겨진, 2024년 12월 22일이었다.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손은 분주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26명의 목자와 13개 목장 목원 어린이들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성탄 특송을 준비했다. 특송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 음치박치몸치는 찬양 앞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찬양’=’기쁨'=’이것은 우리의 영광이다’의 항등식 같았다. 빨강 초록 하양으로 꾸며진 우리들은 기쁨의 소식을 크게 전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분명히 알렸다. 몸짓과 목소리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셨을거야. 유치촌 목자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웃었다 아기 예수님이 기쁨 중에, 우리 안에서 또다시 탄생한 것 같았다……유치1마을은 30년 한결같이 섬겨온 할머니 목자님을 최고점으로 하여 80대부터 30대 목자님들 그리고 6세 아이들까지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할머니와 손주같은 조카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예배드린다.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목자님들과 아이들의 눈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양은 다르다. 좁은 길을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목자님들의 눈속에는 여유와 포근함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애정의 별이, 우리 아이들 눈엔 너무나도 순수한 하나님 별이 새겨져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빛나는 별☆눈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이처럼 다양하게 빚어주신 것 자체가 선물인거 같아서다. 유치촌 목양목자로서의 내가 느끼는 기쁨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노처녀 시절,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며 다짐 아닌 다짐을 한 적 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는 절대 하지 않을거고 못할거 같아요. 너무 수고하시자나요…..헌금이 제 섬김의 최선입니다……..’ 스쳐가듯 내뱉은 이 읊조림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놓치지 않으셨다! 2022년 유치촌을 처음 찾아왔을 때, 당시 6세였던 딸은 분리불안이 심해 함께 예배를 드렸야했다. 쉬운 말+기본에 충실한, 아이들과 내 눈높이에 똑 들어맞는 설교 말씀과 목자님들의 아이들 돌봄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유치촌으로 마음이 흘러들어왔다. 세상의 풍파에 맞서고 있는 내게 유치촌 목자 섬김은 매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쁨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 목장 아이들은 위로와 기쁨, 그 자체였다. 콧물이 흘러 입술에 닿아도 귀여웠다. 내 목소리에 무서워 울어도 이뻤다. 참 신기한 목자의 기쁨이다. 성탄주일 준비한 반짝반짝 성탄별 찬양은 완벽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에뻤다. 아이들의 긴장도 예뻤고, 목자님들의 상기된 얼굴도 예뻤고, 마음들이 예뻤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예뻐하실지 궁금했다. 목장에게 허락된 “10분, 텐미닛” 공과 시간은 아이들과 일대일로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이 텐미닛을 일년동안 반복하면 한글을 몰랐던 아이들이 어느 새 자기 이름을 쓰고 부모님 이름을 쓰고 목자님 이름을 쓰고 목장 이름을 쓰고 있다. “예수님”을 아주 또박또박 쓰고, 5가지 복음 색깔의 의미와 상징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놀랍고 신기하다…..며 기뻐할 새가 없이 아이들은 유년촌으로 흘러가야한다.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촌과는 안뇽이다. 작별의 시간이 성탄의 기쁨 뒤에 찾아온다. 잘 키운 새끼들을 보내려니 아쉽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예배를 통해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큐티아이를 통해 말씀과 가까운 아이들로 자라나고, 참 잘했어요 도장 팍팍 찍어주고, 큐티상 받으려고 애를 쏟고, 매달 성구암송과 함께 말씀 먹고 쑥쑥 자라난 코찔찔이들……..너희가 자랄 때 더불어 나도 자랐음에 감사해. 유년촌에서도 목자님들 품안예서 잘 자라기를,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축복해♡.